

생활정보

'19세미만 판매' 표시의무화

오는 9월10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과 담배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자연학습 관찰길' 10곳 조성

서울시가 시내 10개 산에 학생들이 등산을 즐기면서 각종 식물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자연학습관찰길'을 조성했다.

특수대학원서도 박사학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분 야간에 수업이 이뤄지는 특수대학원에서도 내년부터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무료로 인터넷 자동접속

KNK텔레콤은 최근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인터넷 자동접속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은 후 전국 어디에서나 PC를 전화선에 연결하면 시내전화 요금만 내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열차표 전자거래 시스템

안방에서도 열차표를 살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고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열차표 전자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강산 푸르게 그린캠프

입학준비와 산림청의 도움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99그린캠프'를 연다. '숲은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숲의 물 저장 △숲의 수질정화 △숲과 대기 △승가구기 등으로 28일부터 8월4일까지 이틀동안 두차례 진행된다.

어른들 무관심이 낳은 人災

어린이 대상 범죄·안전사고 급증

10세미만 사고사 선진국의 4배 정부, 아동사고예방 대책 절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안전사고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그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가히 세계의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대낮 주택가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사경을 헤매던 김태원(6)군이 투병 49일만인 지난 8일 숨졌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놀이터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만도 300여회로 집계됐다.



△황산테러를 당한 태원군을 매주 월·목요일마다 위로 방문했던 경북대병원 법사 법우수님(심물정사)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태원군의 유골을 명부전에 봉안했다.

한국인 거액도박꾼 모집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여성 로라 최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인 고객들은 한번에 수천달러를 거는 외국인과는 달리 10만달러(1억2천만원)씩 걸면서 '큰 손'임을 과시해 현지에서 '고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美 도박장에선 한국인 '봉이다'

3일간 84억 잃기도

심부름센터 불법영업 전국 3천여곳

도청기·몰래카메라로 사생활 엿보기 예사

도청기·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인등록등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위협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용한 사람들도 면피부를 받을 수는 없다. <백유경>에 "복을 닦기 위하여 살림 살고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다.

가 영국은 7명, 일본 10명인데 비해 한국은 영국의 4배인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은 아동 보육시설 기준법에 어린이 대피시설은 물론 장난감의 크기, 계단의 높이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법이나 다름없는 아동학대도 심각하다.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가 제시한 97년 15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98년에는 3백여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는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

를 교 의 눈

박찬웅교수(동국대 사회학)는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라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회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도박을 해 7백만달러(84억원)를 잃은 한국인도 있었고, 이들 '고래'들은 대부분 기업인과 연예인이라고, 미국 신문에 이같은 기사가 난 것도 망심거리지만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시국에 이같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박봉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이처럼 명암이 엇갈리는 구석이 너무 많다.

국내 첫 '신약' 개발 성공

SK케미칼, 함양주사제 '신플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 이 주도해온 세계 '신약(新藥) 개발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한국의 대형참사는 세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잇따라 일어나는 사고에서 수많은 생명의 죽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고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어린이 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어린이 보육과 교육의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했다. 현재 어린이 시설들이 너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시설투자가 열악하여 사고 위험이 많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에게 맡겨 놓은 시설들이 사고가 나면 문책만 하는 처지 아니라는 일들을 보고 있는가? 어린이 전용 시설 역시 어린이 전용 시설이 거의 없다.



진 옥

(여수 석천사 주지)

어른들 욕심이 어린이 참사 초래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과 질서 우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이 모양이 됐나 한탄을 하게 된다. 화성 어린이 대령 참사에서 수 많은 어린이가 아무런 방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에게 맡겨 놓은 시설들이 사고가 나면 문책만 하는 처지 아니라는 일들을 보고 있는가? 어린이 전용 시설 역시 어린이 전용 시설이 거의 없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한 사건 마무리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련시설 등은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어서 관리해야 하고 개인의 영세한 자본과 상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생명 희생의 대가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에게 너무 의존하면 종교적인 편향성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과 질서는 하나 밖에 없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치에 우선해야 어린 생명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상업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이번 참사도 각자의 위치에서 크게 반성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2 columns: Year (1st/2nd) and Course/Professor. Lists subjects like Buddhist History, Buddhist Psychology, and various Buddhist scriptures, along with the names of the lecturers.

3.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6 columns: Applicant, Eligibility,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Period, Interview/Admission, and Remarks. Details the recruitment process including application dates and interview times.

4. 입학일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 ☎ 02)733-0333
◎ 대구 : 상영불교서당 ☎ 053)425-4097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전 : 불문서점 ☎ 042)257-0161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한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지상중계 해거 스님과 따나는 불교전리문

과신(戒),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신』의 불교계로 과신의 의미와 참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불교계전리문 / 불교계승 재가 인재양성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본부족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사건으로 보는 성모기행 / '99년축복의 해를 맞이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 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문화시행 / 불교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르스의 '제3의 길' 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국 그루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영하는 법



1999년 봄 호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술원 근현대 재가불자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원천인 역할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에 빛나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강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사찰과 자연생태 / [I]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정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원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정환 정씨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사비 목판기 서명 - 허은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는지 총합색인(1998.12 - 1999.3)